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7월 금통위

“인상 기조 이어나갈 필요”

- 7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75%로 인상. 3년 6개월 만에 통화긴축
- 이번 인상 이후에도 “인상 이어갈 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기조적 측면에서는 매파적 통화정책 이벤트.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여

2026년 7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75%로 25bp 인상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1월에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긴축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2025년 2월과 5월 총 4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bp 인하한 바 있다.

해당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뤄졌다.

“이례적인” 기준금리 인상 환경. 물가, 성장, 금융안정 모두 인상을 시사

7월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두고 추가 인상 여부 및 강도 등을 두고 논란이 상당했다. 다만 이미 금리를 인상할 유인들이 이례적으로 많다고 밝힌 통화당국의 사전 입장 표명으로 사실상 추후 전개될 금리 인상의 강도나 통화당국의 행동 타입에 시장의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이에 통화당국은 과감하고 연속적인 인상보다는 기간 간극을 두고 점진적인 인상 경로를 밟아갈 가능성을 보다 높게 시사했다.

높아진 물가에 대한 우려에 성장, 금융안정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이어갈 여지는 상당하나 금리 결정 시점마다 지표 여건이나 취합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에 필요한 요건들이 모두 갖춰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꾸준히 이어갔다. 하지만 연속 인상 혹은 8월에도 기준금리를 (백투백으로) 인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든 금리 결정에 필요한 환경이 일제히 인상 쪽에 맞춰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통화정책의 기조 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매파적 성향을 드러낸데 반해 인상 방법을 놓고는 점진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라는 추측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당사는 이처럼 통화당국이 통화정책발표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점에서 이번 금리 인상이 추후 전개될 긴축 사이클의 첫 번째 일정일 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견해 역시 그대로 유지토록 하겠다.

또한 금리 인상 방식은 주지한 바와 같이 점진적인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인상이 10월, 내년 1분기까지 분기당 1회 가량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2026년 연말 한국 기준금리 3.00%, 2027년 1분기 말 3.25% 예상).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연속 인상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면..

워낙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쟁점이 크게 부각된 만큼 신총재의 발언들은 높아진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발언의 수위와 추가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 시사는 분명 긴축적인 동시에 매파적이었다.

특히나 지금의 물가와 경기 여건을 종합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한 대목은 단순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 기대 심리의 확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안정 문제를 부동산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합해서 언급한 대목 역시 기초적인 매파적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사는 통화당국이 일일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환경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7월 금통위는 기초적으로 매파적인 통화정책 이벤트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속적인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이 시간을 두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긴축의 타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시중금리는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나 7월 인상 이후 8월 인상이 없다면 적어도 기준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통화정책 이벤트가 없는 기간이 3개월 정도에 이른다면 급격한 금리의 상승 변동성 분출 이후 제한적이나마 하락 시도 역시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2026년 7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및 중동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제금리는 상승하였다. 주가는 AI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이란 종전협상 이행 상황,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 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 물가를 보면,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2%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승하였고,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